

이효리, 이상순 'MBC 방송연예대상' 우수상 수상에 "축하합니다"

등록 2025.12.30 09:27:35



[서울=뉴시스] 가수 이효리가 남편 이상순의 수상을 축하했다. 2025.12.30. (사진 = 이효리 인스타그램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가수 이효리가 남편인 기타리스트 겸 싱어송라이터 이상순의 수상을 축하했다.

이효리는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축하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이상순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5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로 라디오 부문 우수상을 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상순은 "MBC 라디오 DJ를 맡게 돼서 영광인데,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진행한 지 1년 좀 넘었다. 좀 더 열심히 하란 얘기로 듣고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했다.

또한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청취자들이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매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며 "그리고 청취자 중에 굉장히 열혈 청취자인 우리 아내에게도 사랑하고, 고맙단 말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효리는 1998년 핑클 1집 앨범 '블루 레인(Blue Rain)'으로 데뷔했다. 멤버들과 '블루 레인(Blue Rain)' '내 남자 친구에게' '영원한 사랑' 등을 히트시켰다. 이상순과 2013년 결혼했다.

결혼 직후 제주에 동지를 틀었던 두 사람은 11년 만에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 지난해 하반기 부부는 서울 평창동으로 이사했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 8월 서울 서대문구에 '아난다 요가원'을 개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